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울독> Vol.1, 2020.08.15



* 8월의 통곶 비전 나누기

<갈대상자와 열두바구니, 그리고 울독>

(1)

유라시아 한동해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포럼의 창립 100일 기념 세미나가 이제 옛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최하고 저희 포럼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강사진들을 저희가 섭외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이 우리 포럼 백일 잔치를 위해 오시기로 했습니다. 막 태어난 포럼이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포럼은 “비전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고 디아스포라와 연합한 “3자 연대”로 우리 민족을 21세기의 중심국가로 비상시키겠다는 비전입니다. 유라시아를 향해 뻗어가며 유라시아가 우리 동해로 물려드는 그런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주자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한반도만의 동해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동해를 21세기의 지중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매달 한번씩 우리 포럼 회원들을 위한 비전 나눔으로 컬럼을 하나씩 쓰고자 합니다. 비전은 나눠야만 확산되고 그 비전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현실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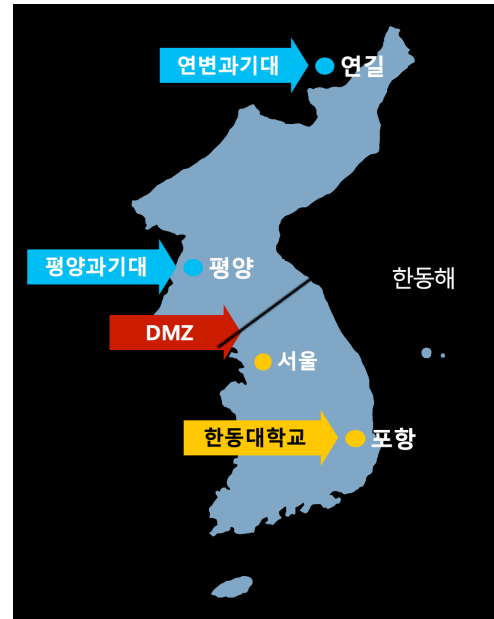
부끄럽지만 첫 컬럼이니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공부밖에 모르던 범생이로 자라 서울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시절엔 술도 많이 마시고 연애도 많이 하다가 교회 반주자였던 제 아내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 보스턴의 MIT 공대에서 Post-Doctor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양회에 가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 즉 통일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외쳤던 “청년들이여, 앞으로 다가올 영적 3국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가 수행하던 미 우주항공국 NASA 프로젝트의 결과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유대인 지도교수는 저를 붙들기 위해 월급을 계속 올려주고 영주권까지 신청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돈과 명예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중공(그 당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이라는 홍해 바다를 건너 불확실성의 광야를 향해 떠났습니다.

저의 지난 25년은 연변과기대-한동대-평양과기대 라는 세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운 교육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항상 붙들었던 비전은 남과 북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하나되는 3국통일 (정치적 통일이 아니

라 21세기의 경제, 문화적으로 뻗어나갈 통일의 시대)의 꿈이었습니다. 처음 받은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포항에 다시 와서 3자연대 시대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포럼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고 남북경협 시대를 열어야 하며, 남과 북이 서로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다양한 생각과 전략을 나누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2)



비전을 지닌 사람은 기적을 이루어 냅니다.

연변과기대 초창기에 소달구지 지나가는 북산가 무덤가에 깃발 하나 꽂아놓고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을 가르치는 대학을 세우겠다는 그 비전 하나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동대 초창기에는 포항 흥해읍 바닷가 시골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을 세우겠다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킬 인재를 배양하여 남과 북을 잇는 연합과 상생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변과기대-한동대-평양과기대)의 지난 역사입니다.

1997년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담아 “갈대상자”를 만들 때, 같은 비전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연변과기대로 다시 떠나야 했지만, 3자연대의 꿈을 담아 갈대상자 회원으로 등록하여 그 비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한번도 쉬지 않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매달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비전을 굳게 붙든 결과 많은 인재들이 한동대를 통해 배출되었고 특별히 연변과기대와 한동대 사이에 수백명의 교환 학생들이 서로 다녀갔습니다. 두 학교를 통해 세계를 누비는 제자 비저너리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다시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라시아 한동해 포럼을 맡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2003년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후, 평양시 외곽 낙랑구역의 빈 벌판에서 다시 3국 통일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당시 외쳤던 말들은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비전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실크로드를 타고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가는 비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비전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했으나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네가 먼저 헌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94년 연변을 향해 떠나올 당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제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맡겨두고 떠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그 통장을 다 찾아서 평양과기대 후원회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장남인 저를 이상으로 여기고 사셨던 분입니다. 제가 미국과 한국의 좋은 직장을 버리고 민족을 위해 길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마치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처럼 슬퍼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 부탁을 듣고도 1주일 동안 아무 답이 없으시더니 한참만에 e-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네 부탁대로 통장에서 그 돈을 다 찾아 평양과기대 후원금으로 보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너를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마지막 남은 돈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 네 아들 대학 등록금은 무엇으로 감당하려 하느냐?”

저는 분명히 그 당시 어머니 가슴을 아프게 한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비전을 따라 결국 평양과기대가 우뚝 세워졌고 북한의 많은 청년들을 변화시키며 남북연합과 3자연대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통장

을 모두 털어 평양과기대의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때 만든 것이 “열두 바구니”라는 그릇이었습니다. 저의 희생을 통해 평양과기대 프로젝트 팀의 많은 후배 교수들이 따라서 자신의 통장을 털어 열두 바구니에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 교민들이 크고 작은 후원금들을 보내오면서 열두 바구니가 채워졌고 마침내 그 대학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 건축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 평양과기대 건축헌금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던 아주머니도 통장을 털었고 캐나다의 어떤 과부 할머니는 민족 통일을 위해 자신의 저축을 털어 2만불짜리 수표를 들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금들이 모여 오늘날 평양과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무사히 다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덤으로 늦둥이 셋째 딸까지 얻었고요. 때가 되니까 우리 부부는 다시 이렇게 포항 한동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이라는 더 스케일이 큰 비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그릇이 필요할까요?

갈대상자에서 열두바구니로... 그리고 이제는?

(3)

백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땅히 손님을 청한 주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난 몰라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유원포(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이라는 아기를 함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중간 결산을 해 보니, 현재 창립 회원(61명) 중에 30명이 연회비를 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모이신 “토론토 하나드림”(멤버 30명 중에서 유원포 회원 3명)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S/F하나드림 회원(멤버 12명중 우리 회원 5명) 들도 연회비를 전원 보내주셨습니다. 연회비 외에 반정민 이사님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내 주시고 여러 이사님 감사님 고문님이 후원금을 내 주셨고, 토론토 하나드림에서 17분이 참여하여 2,150불의 후원금을 별도로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 계신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에 비해, 한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의 동참이 더 필요한듯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되는 연회비 조차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의 비전에서 멀어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비전에서 멀어져갈 것입니다. 백일 잔치인 8/21일 경주 세미나까지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돈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비전을 이루어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 유원포를 위한 후원 그릇의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울독 항아리” 또는 줄여서 “울독” 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줄여서 “울독”이라고 했습니다. “울”은 우리라는 뜻이고 “독”은 작은 항아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담는 울독 항아리 입니다.

갈대상자에 한동대학의 비전을 담았고 열두 바구니에 평양과기대의 비전을 담았다면, 이제 울독 항아리에 “유라시아 한동해”의 비전을 담읍시다. 이제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그 날에 모든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울독”으로 백일잔치를 준비합시다.

- 정진호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장)

<경상북도 남북경협포럼 경주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가 개최하고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한동해 포럼) 및 경주시 남북교류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 우호도시를 통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추진전략" 특별 세미나가 8월 21일 14:00~17:30분에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가자 개성으로 오라 경주로, 가자 청진으로, 오라 포항으로!"라는 구호를 붙인 본 세미나에서는 "한반도평화전략과 21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서 "남북 우호도시로 연결된 자발적 연대 공동체로 한반도 뉴딜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본 포럼 정진호 회장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뒤이어 "우호도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및 "해양 및 기업교류를 통한 경협활동 기반구축"의 주제로 선택식 세션 및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 사진1. 한동해포럼 경주세미나 포스터 >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은 지난 2020년 5월 1일에 창립하여 5월 22-24일에 "울릉도와 독도에서 유라시아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첫 창립기념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임시 이사회 개최>

경주 세미나에 앞서서 오전 10시반 부터 같은 장소에서 정관 개정 및 고문/자문위원 위촉의 안건을 위해 임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회원가입 안내>

- 1) [회원가입 신청서](#)
- 2) [정관](#)



< 사진2. 유원포 창립기념 첫 특별 세미나 "울릉도/독도에서 유라시아를 바라보다" >

<붙임1>



장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남북 우호도시를 통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추진 전략

“가자 개성으로 오라 경주로, 가자 청진으로 오라 포항으로!”

■ 1부 기념식 및 기조 강연/주제 강연

기조 강연: “한반도 평화전략과 21대 국회의 역할” (송영길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제 강연: “남북 우호도시로 연결된 자발적 연대 공동체로
한반도 뉴딜로 나아가자” (정진호 교수,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장)

■ 2부 선택식 세션 후 패널 토의

Session I. 경상북도 남북경제협력포럼 인문문화진흥분과
“우호도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북교류 및 협력 방안”

Session II. 경상북도 남북경제협력포럼 해양농축수산업개발분과/중소벤처기업교류분과
“해양 및 기업교류를 통한 경험 활동 기반 구축”

* 기조강연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주제강연 *



정진호
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 회장

주최: 경상북도

주관: 한동해 포럼 OneEastSea Forum 경 주 시

< 붙임2 >

